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563>

JCCT 2023-11-67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alling and self 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 of nursing students

이혜경*, 최윤수**, 김지선***, 김명서***, 전찬영***, 조채윤***, 허연진***

Hyea-Kyung Lee*, Yun-Soo Choi**, Ji-Seon Kim***, Myeong-Seo Kim***,
Chan-Young Jeon***, Chae-Yoon Cho***, Yeon-Jin Heo***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편의표집을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1학년~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구글 온라인 설문 방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명의식은 21.7%($\beta=-.181, p<.001$), 전공만족도 2.8%로,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을 총 2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20, p<.00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을 인식하고 확인하면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주요어 : 간호, 간호대학생,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s. 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is a descriptive investigative study using convenient samples. The data collection collec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Google's online survey methods for first- to fourth-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at three universities in North Chungcheong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dow 25.0 program as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one-way ANOVA, and post-test as Scheffé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udy found that 21.7% ($\beta=-.181, p<.001$), 2.8% major satisfaction, and 24.5% ($\beta=.420, p<.001$), so it is recommended to use it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curriculum and teaching learning strategy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Calling, Self-seteem,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정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준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사과정 (교신저자)
***준회원,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학사과정 (참여저자)
접수일: 2023년 9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9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일

Received: September 5, 2023 / Revised: September 19,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Corresponding Author: cyunsoo151@gmail.com
Dep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전문직업관이 필요하므로[2], 간호대학생 때부터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가 지닌 가치관에 직업관을 결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를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간호에 긍정적인 신념과 긍지를 가지게 한다[3]. 높은 수준의 수요자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병원 내의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확고한 전문직관 정립이 필요하다[2]. 특히 병원 인력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호사들이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때 질 높은 간호 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환자뿐만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도 만족하게 되고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4,5].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간호사의 소진을 낮추며[6], 간호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간호성과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7].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이 간호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여, 교육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8],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간호학과 재학 중 간호학을 공부하며 형성된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진로를 준비하고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간호를 잘 수행하고 병원에 잘 적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9].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미 부여와 목적의식으로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간호전문직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0].

Dik과 Duffy의 연구에서[11] 소명의식의 구성요소를 ‘초월적 부름’, ‘목적 및 의미’, ‘친사회적 지향’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간호사 윤리선언 중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부분은 국

가와 사회로부터 간호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는 ‘초월적 부름’의 속성과 연결되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안녕 추구를 삶의 본분으로 삼고’라는 부분은 간호전문직을 삶의 더 큰 목표와 연결시키는 ‘목적 및 의미’의 속성과 연결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녕, 즉 공익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지향’의 속성과 연결된다고 하였다[11].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10], 이를 규명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 간의 인과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Kim과 Han의 연구[12]에 불과한 실정므로,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있어서 소명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의미하며[13], 개인의 행동과 사고를 조절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14].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전공학과 직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여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향상시키고, 대학생활적응에도 영향을 준다[15].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잘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심리 차원의 자아존중감 향상, 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16].

그러나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나[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교의 1학년~4학년 간호대학생 40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를 산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로 산정하고 예측요인 8개를 입력하여 160명이 산출되었다. 총 400명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한 24부와 설문지 회수가 되지 않은 19부를 제외하고 최종 357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un, Kwon과 Ahn이[17] 개발한 도구를 Han, Kim과 Yun[18]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수정한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총 10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의 총 5개 하위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번호 11, 17, 18번의 문항은 부정적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고, 각 항목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un 등의[17]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 Han 등의[18]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4$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Hagmaier와 Abele가[19] 개발한 다차원적 소명척도(Multidimensional Measure of Calling: MCM)을 Ha, Sohn, Choi와 Eun이[20] 한국어로 타당화한 한국어판 다차원적 소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적 소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 등의[19]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가[21]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의 정도와 자아승인의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인 문항 5개, 부정인 문항 5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부정 문항 3, 5, 8, 9, 10문항은 역산하여 계산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9$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4일 ~ 5월 15일까지이며, 각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자료수집을 하였다.

충북 소재 3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4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구글 온라인 설문 방법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지 배부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간호대학생으로부터 연구참여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 나이는 22.09세이며, 여학생이 73.9%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종교는 없는 대상자가 77%로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대상자가 57.7%로 가장 많았고, 보통은 38.1%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3학년 33.1%, 1학년 30.5% 순으로 많았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SD
Age			22.09±2.08
Gender	Male	93(26.1)	
	Female	264(73.9)	
Religion	Yes	82(23.0)	
	No	275(77.0)	
Major Satisfaction	Good	206(57.7)	
	Moderate	136(38.1)	
	Bad	15(4.2)	
Grade	1	109(30.5)	
	2	63(17.6)	
	3	118(33.1)	
	4	67(18.8)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및 소명의식의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및 소명의식의 정도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3.8점(1~5), 자아존중감은 3.7점(1~5)이었으며 소명의식은 2.64점(1~4)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및 소명의식의 정도
Table 2. The subject's nursing professional, self-esteem, and degree of vocation

Variable	M±SD	Range
Nursing Professionalism	3.68±.43	1~5
Calling	2.64±.57	1~4
Self-esteem	3.70±.68	1~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통인 대상자가 불만족인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8.03, p<.001). 학년의 경우도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93, p<.001).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classification	M±SD	t or F	p
Gender	Male	3.64±.55	-.880	.379
	Female	3.69±.38		
Religion	Yes	3.75±.37	1.826	.069
	No	3.66±.44		
Major Satisfaction	Good ^a	3.77±.38	18.030	<.001
	Moderate ^b	3.59±.38		
	Bad ^c	3.20±.83		
Grade	1 ^a	3.57±.34	5.935	.001
	2 ^b	3.86±.45		
	3 ^c	3.69±.53		
	4 ^d	3.65±.26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195, p<.001), 소명의식과 간호전문직관 간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68, p=.001).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간호전

문지관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표 4. 자아존중감, 소명의식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vocation consciousness, and nursing professionals

	Calling	Self-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Calling	1		
Self-esteem	.172**(.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468**(.000)	.195**(<.001)	1

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전공만족도와 학년의 2개 변수와 자아존중감, 소명을 포함한 4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을 21.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181, p < .001$), 전공만족도도 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 = .420, p < .001$). 그러나 자아존중감과($p = .191$) 학년은($p = .181$)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928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VIF도 1.077로 10을 넘지 않았다. 상태지수는 1.000~13.265로 30을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외하였다. 또한 오차의 자기상관(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8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s

Variables	B	β	SE	t	p	Adj R ²	F	P
Constant	3.038		.123	24.73	<.001			
Calling	-.136	-.181	.036	-3.79	<.001	.217	58.892	<.001
Major	.319	.420	.036	8.78	<.001	.245		

Satisfaction								
--------------	--	--	--	--	--	--	--	--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3.68점(1~5)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 3학년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22] 3.7점(1~5)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에서는 3.91점(1~5)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에서도 3.81점(1~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선행연구[23]를 비교해보면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1,2]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은 이론과 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되며[15],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문제해결 수행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14]. 간호전문직관은 간호학 교육에서 성취해야 하는 학습성과 중 하나로 전공지식을 중심으로 임상실습 환경에서 이론과 실무를 배우면서 전문직관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15].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은 전공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지학년에 비해 간호대학생 4학년의 간호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역할이 구체적이면서 긍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의 정도는 2.64점(1~4)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10] 2.87점(1~4)으로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였으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24점(1~4)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10]. 또한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낮게 나타난 것은 업무 부적응, 교대근무, 과도한 업무량 등으로 인한 사직

를 증가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소명의식을 통해 간호업무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명의식이 이직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리가 가능한 특성이므로 간호사의 인적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명의식을 제고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2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7점(1~5)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24] 3.7점(1~5)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고,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25] 3.6점(1~5)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전공학문에 대한 가치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7], 본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자아존중감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결과도[5],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24]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은 저학년보다는 임상실습 경험 및 전공학문에 대한 학업성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공만족도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0]. 전공만족도는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학과 적응 능력 향상은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게 한다[27].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28]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고, 1학년과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

였고 다른 연구에서는[10]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았고 3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은 3.87점(1~5)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25]. 이처럼 학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1학년이나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보다는 3학년과 4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2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본간호학실습을 경험한 후 새로운 실습에 대한 기대와 전공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2학년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마주하는 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10],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업무는 주로 관찰 위주의 간호 수행을 하므로 간호업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여[29] 2학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학년의 간호전문직관이 낮은 이유로는 다양한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전문직관의 형성과 발달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학년별 적절한 간호전문직관 교육을 통해 간호전문성을 향상시켜준다면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30].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소명의식 21.7%, 전공만족도는 2.8% 총 24.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20, p<.00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소명의식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0].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은 간호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간호전문직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10]. 또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며 현실적인 적응을 준비하는 등 진로 준비에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30]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알고 소명의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10].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파악되지 않았고, 선행연구와는[26,27]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

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31].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지지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28].

본 연구는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을 인식하고 확인하면서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가 확인되었고 이 둘의 변수는 간호전문직관을 총 24.5% 설명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간호업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알고 소명의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7]. 또한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임상실습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외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자면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간호전문직관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E. H. Hwang & S. J. Shin,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1, No. 1, pp. 97-108. April 2017.

DOI: 10.5932/JKPHN.2017.31.1.97

[2] K. M. Lim &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4, pp. 556-566. April 2016. DOI : 10.5762/KAIS.2016.17.4.556

[3] M. S. Jeong et al, *Introduction to Nursing 3th ed.* Seoul: Hyunmoonsa, 2018.

[4] Y. S. Moon & S. J. Ha,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72-79. April 2011. DOI : 10.5977/JKASNE.2011.17.1.072

[5] Y. M. Kwon &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September 2007.

[6] E. K. Ko, H. Y. Kim, G. S. Kim, R. S. Kim & H. S. So, "Burnout amongst nurses in cancer wards: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Asian Oncology Nursing*, Vol. 18, No. 4, pp. 214-223 December 2018. DOI : 10.5388/aon.2018.18.4.214

[7] K. Hallin &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February 2008. DOI : 10.1111/j.1365-2648.2007.04466.x

[8] S. H. Go, *Introduction of Nursing 3rd ed.* Seoul: Pacific Book., 2016.

[9] E. H. Choi & I. S. Jang,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Soc Sch Health*, Vol. 34, No. 3, pp. 170-178, December 2021. DOI : 10.15434/kssh.2021.34.3.170

[10] K. E. Lee &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Vol. 28, No. 1, pp. 37-47, February 2022. DOI : 10.5977/jkasne.2022.28.1.37

[11] B. J. Dik & R. D. Duffy,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37, No. 3, pp. 424-450, October 2009. DOI : 10.1177/0011000008316430

- [12]H. Y. Kim & S. J. Ha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ll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for Nurses in General Hospital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5, No. 3, pp. 220-228, January 2019. DOI : 10.1111/jkana.219.25.3.2.20
- [13]M. Rosenberg,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1, No. 2, pp. 135-152, September 1962. DOI : 10.1016/0022-3956(62)900
- [14]L. Clark & C. Thornam. "Using Education Technology to Teach Cultural Assessment",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41, No. 3, pp. 117-120. March 2013. DOI : 10.3928/0148_4834_20020301_07
- [15]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School Health*, Vol. 14, No. 10, pp. 873-884. August 2014. DOI : 10.5392/JKCA.2014.14.10.873
- [16]E. J. Oh & H. S. Kang,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nurses' image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freshma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5, pp. 745-760. October 2017. DOI : 10.22143/HSS21.8.5.42
- [17]E. J. Yun, Y. M. Kwon &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October 2005. DOI : 10.4040/jkan.2005.35.6.1091
- [18]S. S. Han, M. H. Kim & E. K. Yun,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Vol. 14, No. 1, pp. 73-79. June 2008. DOI : 10.5977/JKASNE.2008.14.1.073
- [19]T. Hagmaier & A. E. Abele, "The multidimensionality of calling: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a bicultural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1, No. 1, pp. 39-51. August 2012. DOI : 10.1016/j.jvb.2012.04.001
- [20]Y. J. Ha, Y. W. Sohn, Y. Y. Choi & H. Y. Eu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Calling Measure(MCM-K)",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7, No. 1, pp. 191-220, February 2014. DOI : 24230/ksiop.27.1.201402.191
- [21]M. Re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2]Y. J. Kim,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14, No. 8, pp. 265-276. December 2020.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 [23]M. J. Kim & S. H. Kim, "Influences of Calling, Work Valu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Employed at University Hospitals in a Region",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10, No. 1, pp. 67-77, March 2016. DOI : 10.12811/kshsm.2016.10.1.067
- [24]J. S. Min,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Problem-Solving Abil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2020.
- [25]J. K. Kim & K. H. Yoo,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Journal of Muscle Jt Health*, Vol. 26, No. 3, pp. 261-269, December 2019. DOI : 10.5953/JMJH.2019.26.3.261
- [26]K. S. Cho,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Jt Health*, Vol. 27, No. 2, pp. 142-152, August 2020. DOI : 10.11111/jkana.2019.25.3.220
- [27]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10, pp. 873-884. October 2014. DOI : 10.5392/JKCA.2014.10.873
- [28]E. H. Choi & I. S. Chang,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n Soc Sch Health*, Vol. 34, No. 3, pp. 170-178, December 2021. DOI : 10.15434/kssh.2021.34.3.170
- [29]C. H. Kim &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25, No. 1. pp. 5-16, February 2019. DOI : 10.5977/jkasne.2019.25.1.5
- [30]S. Y. Lee & S. B. Je, "The Effect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1, No. 5, pp. 231-246, October 2020. DOI : 10.22143/HSS21.11.5.17
- [31] H. J. Park, E. K. Byun & H. J. Yang, “Influence of Self-esteem,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9, No. 12, pp. 627-636. December 2019. DOI : 10.35873/ajmahs.2019.9.12.056